2010년 인생을 바꾼 한일전 승리

23인의 전사 Road to Brazil

❼ 김보경

2009년 U-20 월드컵 '성공 스토리'의 시작
일본 J리그 진출 후 남아공월드컵까지 순항
런던올림픽 동메달 주역…'제2 박지성' 별명
12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위상 급성장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는 축구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 덕분에 각종 축구인프라도 크게 개선됐다. 축구대표팀 전용훈련장인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도 이 시기에 건립됐다. 그 무렵 경기도 용인에도 축구센터가 개장했다. 훌륭한 인프라에서 유망주를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용인축구센터의 1기 멤버 다수는 현재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할 김보경(25·카디프시티)이다.

김보경은 용인축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신갈고에서 뛰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U-19(19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돼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했다. 조커를 맡아 1골을 넣었다. 측면 공격수였던 그는 조영철, 서정진 등 경쟁자들에게 다소 밀렸다. 그러나 1년 뒤 U-20 월드컵에선 주전으로 도약했다. 조별리그 최종전 미국전에서 2번째 골을 넣어 3-0 승리에 일조했다. 16강 파라과이전에선 후반 1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U-20 월드컵대표팀의 에이스라고 평가받을 만큼 인상적인 플레이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를 계기로 김보경은 일본으로 진출했다. 홍익대 1학년을 마친 뒤 J리그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했다. 성인대표팀에도 발탁됐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준비하던 허정무 감독은 용인축구센터 시절 눈여겨봤던 제자 김보경을 불러들였다. 허 감독은 용인축구센터 초대 센터장이었다. 2010년 1월 남아공과 스페인에서 열린 대표팀 전지훈련에서 김보경은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김보경은 2010년 2월 이른바 '인생경기'를 펼치게 된다.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대회에서 기대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유럽파를 빼고 동아시아대회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3-1로 격파했다. 주전 왼쪽 윙어로 출전한 김보경은 0-1로 뒤진 전반 33분 동점골로 연결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2-1로 앞선 후반 25분 김재성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며 남아공월드컵 티켓을 예약했다. 6월 최종엔트리에 선발됐다. 주전경쟁에서 밀려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큰 자산이었다.

남아공월드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김보경은 일본에서 승승장구했다.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참가 직전까지 J리그 득점 4위에 올랐을 정도로 발군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U-20 월드컵에 이어 런던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과 다시 만난 그는 한국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그러면서 박지성과 비슷한 외모와 플레이 스타일로 '제2의 박지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지성도 직접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했을 정도였다.

2009년 이후 꾸준하게 성공스토리를 쓴 김보경은 2012년 7월 꿈에 그리던 유럽무대를 밟았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카디프시티로 이적했다. 팀이 2012~2013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됐고, 김보경도 '12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5세에 불과하지만 A매치 26경기에 출전했다. 다양한 국제경기경험도 지녔다. 월드컵 무대는 2번째지만 경기 출전은 이번 브라질월드컵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김보경은 "4년 전과 지금의 나는 많이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김보경(카디프시티)는?

▲생년월일=1989년 10월 6일 ▲키·몸무게=178cm·73kg ▲출신교=원삼중~신갈고~홍익대 ▲프로 경력=세레소 오사카(2009년)~오이타 트리니타(2010년)~세레소 오사카(2012년)~카디프시티(2012년~현재) ▲A매치 데뷔=2010년 1월 9일 잠비아전(평가전) ▲A매치 통산 성적=26경기·3골 ▲월드컵 경험=2010년 남아공 ▲주요 경력=2009년 U-20 월드컵 8강,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김보경(카디프시티)은 '포스트 박지성'의 선두주자다. 대표팀에서도 박지성의 등번호인 7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12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서 박지성의 길을 밟고 있는 그가 브라질에선 어떤 활약을 펼칠까. 스포츠동아DB



역대 축구대표팀 사령탑 오찬 모임이 20일 경기도 파주 NFC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1998프랑스월드컵 차범근, 1986멕시코월드컵 김정남 감독,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2014브라질월드컵 홍명보, 1990이탈리아월드컵 이회택, 1994미국월드컵 김호, 2010남아공월드컵 허정무, 2011아시안컵 조광래 감독.

파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jun

"홍 감독의 자신감이 곧 선수들의 자신감"

역대 축구대표팀 사령탑들의 조언

2014브라질월드컵을 앞두고 역대 축구대표팀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축구협회 초청으로 2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오찬 모임을 가진 역대 대표팀 감독들은 브라질월드컵을 목전에 둔 홍명보 감독에게 다양한 조언을 했다.

"자신감 가지면 16강 이상도 기대해볼만"

●**김정남 감독(1986멕시코월드컵)**=2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봤는데, 세계 강호들과 해볼 만한 전력을 갖췄다고 느꼈다. 남은 시간 부족한 부분을 찾고, 잘 준비하면 16강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다. 홍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 있게 해줄길 바란다는 점이다.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가 월드컵 우승 후보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홍 감독에 대한 평가는 월드컵이 끝난 뒤에"

●**이회택 감독(1990이탈리아월드컵)**=홍명보 감독과는 선수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 홍 감독을 보면 운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런던올림픽에서도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 선발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홍 감독에 대한 평가는 월드컵이 끝난 뒤 해도 될 것 같다. 월드컵에 나가는 팀 중 우리보다 약체는 없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부상 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취약한 수비전환을 보완해야 한다"

●**김호 감독(1994미국월드컵)**=우리 선수들이 가장 취약한 수비전환을 보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11명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 또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 많은 골을 터트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수비수들이 미리미리 움직여 상대 공격을 지연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홍 감독은 런던올림픽 통해 희망 심어줘"

●**차범근 감독(1998프랑스월드컵)**=홍명보 감독은 올림픽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다. 우리 축구팬과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브라질월드컵에서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다.

"심리적으로 팀 전원이 자신을 이겨내길"

●**허정무 감독(2010남아공월드컵)**=홍명보 감독을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현지에서도 잘 할 것으로 믿는다. 남은 기간 최대한 전력을 끌어올려 잘 할 것이라 믿는다. 공수에 걸친 세트피스를 보완하고, 우리 선수들이 슈팅에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가다듬으면 역대 최고의 성적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심리적 부분에서 우리 팀 전원이 스스로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미드필드 지역서 볼 오래 소유하는 게 중요"

●**조광래 감독(2010년 7월~2011년 12월)**=브라질월드컵 성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잘 할 것으로 본다. 월드컵 레벨을 보면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 소유시간을 오래 갖는 팀이 좋은 경기를 했다. 또 수비수가 실점하는 과정을 보면 70%가 수비수 포지션이 잘못된 결과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써 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부분은 선수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파주 | 최용석 기자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